소상공인 7만7천명↓…2030 사장님은 늘었다

●중기부·통계청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평균부채 1억7천500만원…경쟁 심화에 경영 애로

코로나19 등 재난대응정책 '보조금 지원' 가장 선호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소상공인이 8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2030 청년 소상공인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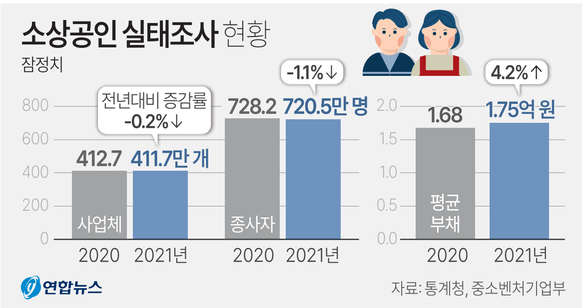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720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7천명(-1.1%)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411만7천개) 역시 전년 대비 1만개(-0.2%)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6%)과 예술·스포츠·여가업(-2.2%)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종사자가 줄었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30.8%)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5.2%)가 가장 적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20대 이하 청년 대표 사업체가 11.7%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 대표 사업체도 4.0% 늘었으나 40대(-0.8%), 50대(-1.9%), 60대 이상(-2.7%) 대표는 일제히 줄었다.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천800만원, 창업 시 본인 부담금은 6천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창업 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64.5%)'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경영 실적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고, 사업체당 영업이익(2천800만원)은 39.8% 급증했다.

사업체당 평균 부채액은 1억7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긴 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사정이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2020년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을 포함해 조사 계열을 정비했기 때문이다.

이외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임금을 애로사항으로 뽑은 소상공인도 10.3% 있었다.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조금 지원(70.8%)을 뽑은 소상공인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토끼 모양 도시락 유통업계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 진열된 토끼 캐릭터 도시락. /연합뉴스

도시에서도 '양도세 특례'

인구 감소지역 주택수 제외…해남 등 기업도시 거론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라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연합뉴스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조4천27억 '역대 최대'

농어촌公 "홍보 강화 등 영향 전년比 1천573억 늘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역대 최대지원액인 1조4천27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천573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사업별로는 ▲맞춤형 농지 지원 7천821억원 ▲경영 회생 지원 사업 3천232억원 ▲농지연금 2천408억원 ▲과원 규모화 사업 331억원 ▲경영이양직불 235억원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수요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강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4분기에 사업비 155억원을 증액, 부채 농가 지원을 확대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강화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도우며 고령 은퇴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신보, 올해 신규보증 3천억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은 2022년 신규 보증을 3천억원 이상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지난 23일 기준 광주시의 골목상권 특례보증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을 포함한 786억원, 5개 자치구 특례보증 179억원, 은행 협약자금 및 중앙회 특례보증 2천43억원 등 총 1만8천121건에 3천8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고금리 및 경기침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68%인 2천37억원을 이차보전(이자 지원) 자금으로 지원했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2023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투데이 경제

전력거래소, 김양일 노동이사 선임

전력거래소는 초대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로 시장혁신처 김양일(사진) 차장이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신임 노동이사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에 입사해 종합조정실, 전원계획처, 중앙전력관제센터를 거쳐 현재 시장혁신처에서 근무중이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준정부기관 최초로 선임된 김 노동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26일까지며 향후 경영진의 한 주체로서 전력거래소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사 상생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aT,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본사, 사업소, 비축기지 등 27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으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서 환경 위험성 식별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의 이행 체계를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는 ▲비축기지 친환경 암모니아 냉매 도입 ▲비축농산물 포장재 재사용 확대 ▲공사 지원사업 디지털화를 통한 종이 사용량 감축 등 자발적인 사업 운영방식 개선으로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양시원 기자

광주청년드림은행 '결과보고 전시회'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최근 광주 서구 민아트 갤러리에서 '2022년 결과보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2018년 광주시 청년정책관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시작, 돈과 빚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1대1 상담을 통해 상황별 부채 해결 대책 제공 등 문제 해결 동반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올해 1년간 광주청년드림은행이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와 상담사의 글이 담긴 '수상한 은행 탐방기'가 소개됐다.

'수상한 은행 탐방기' 책은 광주청년드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양시원 기자